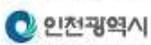


	보 도 자 료		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
	배포일자	2021년 4월 8일(목) 총 2매	
담당 부서	사회재난과	담당자	• 시설물재난관리팀장 곽문권 ☎440-1851 • 담 당 자 정창훈 ☎440-1843
사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사회복지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
- 노인치매요양병원, 사회복지시설 등 12개소, 230개 방연마스크 비치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화재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했다고 밝혔다.

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('18~20년) 화재발생 시 연기 및 유독가스에 의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64%에 달하며, 특히 장애인·어린이 등 재난에 취약한 시민의 경우 화재발생 시 대피 골든타임을 놓쳐 연기 흡입 등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아 방연마스크 보급을 추진하게 됐다.

시는 지난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사업비 1천만 원을 투입해 시 소유 사회복지시설 등 12개소를 대상으로 방연마스크 230개를 지원했다.

방연마스크 비치 대상시설은 어린이집 3개소,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,

아동보호 전문기관 2개소, 노인복지시설, 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등 총 12개소이며, 시설의 구조와 1일 최대 이용인원 등을 고려해 방연 마스크 230개, 보관함 25개를 지원했다.

윤도영 시 사회재난과장은 “재난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화재 시 질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며 “화재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계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” 고 말했다.